

동아리에서 수업도 같이 보고 얘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원영어체험센터 원어민 선생님 수업, 용성중, 산내초 수학 공개수업도 가보고 협의회도 참석했습니다. 수업참관은 내 수업을 세세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다른 재미도 있습니다. 한 아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다보면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친구와 상의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아하!’의 순간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이런 장면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이런 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 멘토가 되다

선배 선생님 두 분과 남원지역 수학교육컨설팅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권 학교 저경력교사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수업도 같이 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컨설팅을 신청한 저경력교사가 없었습니다. 나이차가 이십년 넘는 낯선 선생님에게 자기 수업을 보여주고 컨설팅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께 하는 연합수업이 좋은 컨설팅 모델인 것 같습니다. 수업의 기획, 사전준비, 수업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됩니다. 멘토, 멘티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수학이란 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에서도 연결됩니다.

함께하는 3년차 선생님 한 분의 소감입니다.

『저는 이 배움두레에서 작은학교에서 1,2,3학년의 수학을 모두 책임지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모여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 도움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소규모학교가 연합해서 프로그램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들과 협력해보는 기

회가 부족한 작은 학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항상 보던 같은 반 아이들이라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낯선 아이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힐링을 하고 온 느낌이라 배움두레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동아리는 선배교사들에게도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다른 선생님의 아이디어와 활동을 적용하면서 수학교사로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어떤 선생님은 “한동안 수학교사로서 재미도 없고 힘들었다. 그래서 다른 활동에 치중하기도 했다. 다시 수학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고 우리 모임이 참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경력이 풍부한 교사들도 멘토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학을 넘어서 인생에 다양한 경험도 나눕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어떤 철학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서로 모여서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수업시간에 하던 일들을 자랑하다보니, 궁금해서 물어보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중독되어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무척 강합니다.

학교 특색을 살린 4계(季) 4색(色) 교내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정현철 교사 |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_ 전북사대부고 넷볼 동아리 Lop-ssen과 전북대학교 의대 넷볼 동아리 NETTER

학교스포츠클럽의 가치와 교육적 의미

- 학교스포츠클럽 넷볼부 운영에 관한 내러티브 -

아이들은 나름 최선의 노력으로 참가한 대회였지만 첫 시합을 0:22, 두 번째 시합을 0:15 큰 점수 차로 내리 지면서 울기도 하고 때론 첫 시합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관찰아, 우리는 이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모습을 점검하고 넷볼을 즐기 위해서야. 우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노력을 해보자.”

아이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아이들을 위한 위로 있는 말은 오히려 아이들이 긴장감에서 벗어나 시합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면서 넷볼부가 그토록 염원했던 첫 골이 터지면서 아이들은 환호를 지르며 마치 승리라도 한 듯 기뻐했다. 1:13 비록 결과는 전패였지만 첫 골의 기쁨을 간직한 채 다시 학교의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비록 승리가 없는 대회였지만 소중했던 참여의 경험은 아이들로 하여금 더 많

은 노력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 넷볼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스포츠 예절, 상호의존성, 책무성, 자기 극복 등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삶에 투영되는 듯 보였다.

(중략)

이후 넷볼부는 첫 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었고 그러한 공동의 목표는 넷볼부가 더욱 더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한 활동은 아이들을 크게 성장시키고 있었다. 첫 승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아쉬움이 묻어났던 패배를 통해 스스로와 팀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아이들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작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 아쉬움에 감동과 여운이 묻어나는 만큼 아이들은 더 성장하였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아이들은 그렇게 학교스포츠클럽 넷볼부 활동을 통해 인생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위 내용은 학교스포츠클럽 넷볼부 활동에 관한 경험을 통한 교육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다.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에게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고 성취 경험의 자신감을 통해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들에게 스포츠 참여의 기회와 스포츠의 가치 습득을 통한 전인교육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알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바라보는 시선

학교스포츠클럽은 크게 정규교육과정 내·외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구분되고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다시 교내·외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된다.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거쳐 학교 대표가 선발되고 학교 지역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참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거

쳐 각 종목 대표 학교가 선정되며 선정된 학교는 갈고닦은 실력으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생의 스포츠 자신감, 운동 정서, 학교 행복감,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감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많은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참여 만족도도 현장의 스케치를 통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여를 위한 학교의 다양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는 과거 학교 운동부 교기와 같이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스포츠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스포츠클럽은 우리나라 학교의 대표적인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스포츠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으로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스포츠클럽의 순기능과 달리 학교스포츠클럽에 모든 학생이 접근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이면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해요인이 존재하며 학생 참여를 제약하는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운동 기능이 뛰어나고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근 학교체육진흥회에서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학생들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문화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다.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고민으로 시작된 철학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교외 학교스포츠클럽의 저변 확대는 분명 교육적으로 의미가 존재한다. 하

지만 성적 위주의 학교스포츠클럽의 발전은 오히려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이나 스포츠에 대한 흥미가 적은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학교스포츠클럽의 목적 중 그 출발은 내실 있는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일 것이다. 교내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모든 학생이 스포츠 문화에 참여하고 서로 협동하고 경쟁하며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고 모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 특색을 살린 4계(季) 4색(色)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본래 체육대회와 학교장배학교스포츠클럽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교내학교스포츠클럽 취지와 학교 철학이 결합한 학교 특색을 살린 교내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학교라는 특성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비 외 사업 지원비가 없지만 부족한 예산보다는 교사와 학생의 열정으로 효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 오고 있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내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철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라

고 한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김연아).”

체육 수업의 경우 교사와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 기능과 전술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스포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다.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선택하여 다양한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학생 참여를 통해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학생은 수업에서 얻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학교스포츠클럽 안에서 하게 된다. 그들만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활동하게 된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과 공간을 확보해주었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자의 책임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규범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치를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발현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체육 수업 내용과 연계되는 수준별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운영이다.

“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루, 2루, 3루 베이스를 차례로 밟지 않으면 안 된다.(베이브루스).”

고등학교 체육에서 학생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평생스포츠를 위한 실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고등학교 체육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은 신체 활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육에서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체육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과 틈새

신체활동, 체육대회의 연계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체육대회 종목 등이 분리되어 교육되는 경우 교육적 의미가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교육적인 효과도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이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연계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학기 초 체육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기존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종목 간 상호·보완적인 부분들과 연계성을 살피며 종목의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이 교육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은 체육 수업과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과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다채롭게 참여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참가하게 된다.

셋째, 소외되는 학생이 없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교육적 의도가 담긴 계획으로 실천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면 언젠가 이를 수 있습니다.(마이클 펠프스).”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 모든 학생이 소외감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기획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 기존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과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스포츠와 뉴스포츠의 장점을 살펴 운동 기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학생이 신체 활동과 스포츠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경쟁과 협동이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맨십이 살아 있는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매번 내게 싸움을 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더 중요하다.(매니 파워아오).”

“재능은 게임에서 이기게 한다. 하지만 팀워크는 우승을 가져온다.(마이클 조던).”

경쟁은 자신의 극복을 통한 상대방과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탁월하게 향상시켜주며, 스스로를 자극하게 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열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는 경쟁의 장점을 살려 과도한 승리를 위한 경쟁을 피하며 패배 시 스스로를 깨닫게 하고 경험으로 얻는 실천적인 삶의 지혜를 통해 승리를 위한 기대감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함양시키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안내하며 교육하였다.

협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 하는 역량을 함양시켜주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속감을 바탕으로 다른 팀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팀의 협동력을 높이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결국, 학생은 협동과 경쟁의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내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시 스포츠맨십상과 한울인상, 페어플레이상을 수여하며 모든 시험 과정을 체크리스트로 기록하여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 특색을 살린 4계(季) 4색(色) 교내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2-4_ 사제(師弟)와 함께하는 체육 한마당

봄(春)은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며 온화하고 경물(景物)에 접해 흥겨움이 묻어나는 계절이며 맑은 하늘 아래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계절이다. 봄의 흥겨움을 토대로 많은 학교가 봄철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는 사제(師弟)가 함께 어울리는 체육 한마당을 4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에 실시한다. 국립학교 특색 사업인 교육실습 주간에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한 행사로 50여명의 교육실습생과 70여명의 교사, 그리고 전체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체육 한마당이 개최된다. 3, 4월 체육 수업과 연계된 다양한 스포

츠 종목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종목에 준하여 체육 한마당 종목을 학생회와 체육부가 협의를 통해 선정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경기에 참여하면서 심판, 감독, 코치, 경기 기록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아 책임감 있게 활동에 참여한다. 사제(師弟) 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교사, 학생, 교육실습생 간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학교생활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교사는 학기 초 체육 한마당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학급별, 학교스포츠클럽별 체육 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낸다. 학생은 체육 수

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자신이 속해 있는 반과 학교스포츠클럽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성을 함양하게 된다. 체육대회 특성 중 반별 단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열정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 정신을 기본으로 적극적인 경쟁과 협동심을 발휘하며 각 반의 특성을 강조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스포츠 문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각 종목별 시상과 함께 전체 순위 시상을 하며 모든 반이 페어플레이상, 스포츠맨십상, 봉사상, 노력상, 포토제닉상 등 골고루 상을 받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축하하고 즐기면서 마무리 된다.

여름(夏)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계절로 땀을 많이 흘리며 햇빛의 운동장보다는 자연스럽게 강당과 같은 실내 스포츠와 땀을 적게 흘리는 기술 스포츠가 어울리는 계절이다. 학교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은 매년 1학기 2차 고사 이후 점심, 저녁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무학년제로 이루어진 팀 스포츠와 개인 스포츠 중심으로 운영된다.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 혹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 선·후배들끼리 팀을 구성하여 팀별 스포츠에 참여하고 개별적인 종목에 개인 참가를 하게 된다. 무학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후배들 간의 배려와 협력의 관계를 유도하며 목표 달

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팀 스포츠 종목으로는 운동 기능과 전술을 많이 요구하는 3 on 3 농구, 배드민턴 종목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로어 컬링과 빅발리볼 종목으로 운영된다. 각 팀별 경기력을 바탕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는 팀이 경기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소통하며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팀워크에 대한 피드백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개인 스포츠는 개인의 인내심과 절제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 있는 종목에 참여한다. 개인 스포츠 종목으로는 운동 기능을 많이 요구하는 탁구와 배드민턴,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사격과 장기 종목으로 운영된다. 학교장이 개인별, 팀별 시상을 하며 각 순위에 따르는 상과 어울림상, 극복상 등 노력의 과정을 심사하여 그에 따르는 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여름

5-7_ 학교장배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가을



8-10_ 학생회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가을(秋)은 무더위가 가고 단풍이 물들면서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이며 추수의 계절인 만큼 협동심과 화합을 강조하는 스포츠가 어울리는 계절이다. 가을은 2학기 1차고사 이후 점심, 저녁, 토요일 오전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회 중심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을 운영한다. '한울인배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이라는 명칭으로 학생회가 주관하여 협동심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학생회에서는 전체 학생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학생 의견을 존중하며 단체 스포츠로 축구, 농구, 피구, 넷볼 종목과 체육 수업과 연계한 테니스, 골프 등의 종목으로 운영한다. 단체 스포츠의 경우 학생회에서는 소외되는 학생 없이 반 학생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축구, 농구, 피구, 넷볼 경기 시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 전반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후반에 참여하는 선수 간 중복이 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여 반 학생이 많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학생회 소속 전체 학생들은 한

울인배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에 전체적인 운영에서부터 학생 중심의 심판, 기록 등을 맡아 운영하며 다양한 역할 학습을 통해 책임감을 습득하게 된다. 한울인배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이 해마다 진행될수록 학생회에서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만의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고 교육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협의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정규 교육과정에 1학년 테니스, 2학년 골프 수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한울인배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골프는 2학년 남·여 대상으로 운동장에서 5번 홀을 2번 돌아 총 10번 홀까지의 점수를 합산하며, 테니스는 1학년 남·여 대상으로 테니스장에서 풀 리그전을 통해 운영한다. 학생회장이 개인별, 팀별 시상을 하며 각 순위에 따르는 상과 협동상, 스포츠맨십상, 페어플레이상, 한울인상 등의 상을 수여한다.



11~12 동아리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겨울



겨울은 1년 중 제일 추운 계절로 부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고 실내 스포츠가 주로 이루어지는 계절이다.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겨울은 2학기 2차고사 이후 점심시간과 축제 행사 날을 활용하여 동아리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이 운영된다. 학교 스포츠 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에 속해있는 학생들은 각 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을 홍보하면서 뉴스포츠 체험, 각 스포츠 동아리 종목 체험, 스포츠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하면서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진다. 실제 경기 위주가 아닌 개별적인 체력 측정 혹은 운동 기능을 점검해보는 형식이며 기존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뉴스포츠를 중심으로 동아리 중심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은 진행된다. 동아리별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과제별 미션 수행 시 먹거리를 제공해주며 재미와 참여를 유도한다. 시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 스포츠 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은 한 해 동안 운영한 활동들을 정리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자료와 영상 등을 공유하며 홍보를 한다. 방송부의 협조를 얻어 이러한 스포츠

문화의 흔적들은 영상으로 제작되고 학교스포츠클럽 문화에 교육적인 의미로 기여하게 된다. 학생은 지난 추억들을 곱씹으며 다음 해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을 기대하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스포츠는 이 시대의 중요한 문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의미가 실천될 수 있도록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은 스포츠를 통해 건강증진 및 활기찬 학교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의도적인 교육 신념과 철학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문화가 모든 학교에 의미 있는 교육으로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온전한 '우리'를 위한 노력



김원수 교사 | 이리부송초등학교



1_ 학생회 활동

공동체 의식과 교육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일정한 공간 내에서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을 그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식하며, 함께 속한 타인들과 더불어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의식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또는 공동체는 학교라고 볼 수 있다. 학교는 그 태생적인 특성상 항상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공간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공동의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곳이다. 이처럼 다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공간에서 원활한 삶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더욱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의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소통과는 달리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면대면 소통의 과정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그들에게 불가피한 면대면 구조를 합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학교뿐이다. 따라서 학교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은 셈이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이러한 역할적 책임에 공감하며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